



추위 물러간 날... 비 내린 제주 추위가 물러간 23일 제주시 중앙로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걸어가고 있다.

김희만기자

“양돈장 화재 발생하면 대형 피해”

제주서부지역 지난 6년간 21건 발생... 피해액은 15억대

서부소방서 24일부터 특별안전관리 돌입

한번 났다하면 하면 큰 피해가 발생하는 양돈장에 대한 ‘특별안전관리’가 추진된다.

제주서부소방서는 24일부터 양돈장 화재예방을 위한 특별안전관리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서부소방서 관내 양돈장 화재는 총 21건이 발생, 약 15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이중 절반 이상인 14건(66.6%)이 전기적 요인으로 확인됐다.

실제 지난 3일 서부소방 관할인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소재 양돈장에서 불이 나 모든 돼지 48두, 자돈 100두 등 총 148두의 돼지가 폐사하는 등 소방서 추산 1억4000여만원이 재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서부소방서는 지난 19일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와 화재예방 대책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매월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또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를 막기 위해 ‘패치형 자동소화기’와

‘회전식 콘센트 안전커버’를 시범 보급기로 했다. 특히 패치형 자동소화기는 소공간용 소화용구로, 배(분)전반 등에 설치하면 전기화재 초기진화에 큰 도움을 준다.

서부소방서는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화재·재난·기상특보 등 안전정보를 문자 메시지를 통해 수시 통보하고, 관계인 대상 자율 화재안전점검 컨설팅을 추진기로 했다.

문동원 서부소방서장은 “양돈장 화재는 다른 화재에 비해 피해규모가 월등히 크기 때문에 초기진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송은범기자

■ 기상청 ‘2021년 제주 기후특성’ 분석 결과

“평균기온 역대 가장 높았다”

17.2℃ 기록... 5-8월 여름철도 25.5℃로 역대 3위 “라니냐로 고온다습하고 제트기류는 찬공기 차단”

지난해 제주의 평균기온이 역대 가장 높았던 이유는 ‘북극 제트기류’와 ‘라니냐’ 때문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기상청은 23일 ‘2021년 제주도 연(年) 기후특성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제주도의 평균기온은 17.2℃(최저 14.2℃·최고 20.6℃)로 1961년 이후 가장 높았다. 1961년은 제주도와 서귀포시의 평균기온을 합산해 산출하는 전체 평균기온

을 집계하기 시작한 해다.

계절별로 보면 봄철(3-5월) 평균기온이 15.5℃로 역대 가장 높았고, 여름철(6-8월)과 가을철(9-11월) 평균기온도 각각 25.5℃, 19.4℃로 역대 세 번째로 높았다. 월별로 보면 3월(12.5℃)과 6월(22.8℃) 평균기온이 역대 가장 높았으며, 기온이 평년보다 낮았던 월은 없었다.

기상청은 먼저 3월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2.6℃나 높았던 이유를 제트기류와 라니냐로 꼽았다. 북극의 찬 공기를 가두는 역할을 하는 제트기류가 왕성하게 활동, 찬 공기의 남하를 막았다는 것이다. 또 라니냐로 인해 열대 서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높게 유지, 한반도에 고온다습한 남풍기류가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6월에도 제트기류의 강제로 북극의 찬 공기 남하를 차단한 반면 북태평양고기압은 확장, 아열대 서태평양 상승기류는 활발하게 북상하면서 기온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명절만 되면 가정폭력 ‘부쩍’

최근 3년 하루 14건꼴 신고... 평일대비 30% ↑

제주경찰청은 치안수요 증가와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설 연휴를 대비해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 ‘설 명절 종합치안 활동’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설 연휴기간 112신고 분석 자료를 보면 연휴기간 신고는 하루 평균 31.1건으로 평시 대비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폭력 신고의 경우 하루 평균 28.2건이 신고돼 평시

대비 4.8% 많았다.

특히 가족들이 모이는 명절 연휴에는 가정폭력 신고가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하루 평균 13.9건이 접수돼 평시 대비 29.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경찰청 측은 최근 발족된 여성폭력 대응 TF팀의 활동을 통해 가정폭력·학대 재발 우려가 있는 가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건 발생 시 과거 전력과 여죄 등

을 면밀히 살펴 피해자 보호에 집중할 예정이다.

제주경찰청은 ‘설 명절 특별형사활동’과 연계해 빈집 침입 등 강·절도사건을 막기 위한 선제적 형사활동과 순찰도 강화한다.

더불어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관련해 고위험 시설인 유흥주점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 점검을 강화하고 신고 접수 시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설 명절 종합치안 활동을 통해 도민이 편안하고 안심되는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제주 경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도영기자

먹는 코로나 치료제 65세 → 60세로 제주지역 복용 사례 21일 현재 ‘無’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과 투약 건수가 저조한 모습을 보이자 정부가 투약 대상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투약 개선방안을 지난 21일 발표했다. 먹는 치료제는 전국적으로 지난 20일 기준 확진자 109명에게 투약됐다. 고령층의 높은 예방접종률 등 방역조치로 인해

아직까지 투약 건수가 다소 적은 수준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필요한 대상에게 치료제가 빠짐없이 투약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투약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에서도 치료제 투약이 가능해지며, 이후 도입 물량에 따라 감염병전담 병원에 대한 공급도 추진된다. 먹는 치료제 담당 약국도 추가

확대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담당 약국은 총 280개소이며, 개선안에 따라 약 460개소까지 늘어난다.

또 현장에서 의료진이 더욱 쉽게 처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충하고, 처방 기준 등에 대한 안내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도내에서도 재택치료, 생활치료시설을 포함한 확진자 중 현재까지 먹는 치료제를 복용한 사례는 없다. 먹는 치료제는 나이 제한, 면역 저하 등 정부 지침에 대해 의료진의 판단까지 거쳐야 해 투약 대상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이라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강다혜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4·3 직권재심 서둘러라” 강성국 법무차관 제주 방문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지난 21일 제주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내에 위치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방문해 2530명에 달하는 4·3군법회의의 수형인 직권재심을 서두르라고 밝혔다.

강 차관은 이날 “법무부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검사가 직권재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수정법안을 제출하는 등 4·3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며 “제주4·3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고려, 신속히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향후에도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송은범기자

**콘크리트 먼처리
콘크리트 폴리싱
세라믹 폴리싱
테라조 연마 광택**

에폭시/우레탄 도막제거

제주대 중앙도서관 도끼다시바닥

**아직도 공장, 주차장, 사무실, 쇼핑센터, 물류창고 등
바닥에 에폭시나 타제품으로 시공하고 계십니까?**

**선진국형 친환경 마감공법인
콘크리트 폴리싱 시공으로 한 번에
영구적 바닥 해결!**

신화역사공원 YG

대형 상가매장

일정리 카페

**강한 내구성, 친환경 시공, 쾌적한 표면, 작업환경의 개선
저렴하고 용이한 유지보수, 화재에 강한 안전 바닥재**

HTC SUPERFLOOR™
콘크리트 바닥재의 새로운 혁명!

한국환경위생협동조합
주식회사 제라콘
☎ 723-3090 010-5678-2586

냉동창고 콘크리트폴리싱

영성미디어센터

종달리 카페

동아통운 물류센터